

《몽량록(夢梁錄)》 역주(譯註)*

- 권육(卷六)

金敏鎬**

<목 차>

1. 시월(十月)
2. 입동(立冬)
3. 초겨울에 천자는 종묘(宗廟)에서 제사를 지내고, 명당(明堂)에서 대제(大祭)를 지내는 해가 되면 공사(恭謝)의 예식(禮式)을 행하다
4. 십일월(十一月) 동지(冬至)
5. 십이월(十二月)
6. 제야(除夜)

* 《몽량록》 권6의 내용 소개

《몽량록》 권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1. <시월(十月)> 조에는 초하루에 조정에서 재상과 집정(執政)들에게 비단(錦)을 하사하는 상황과 서민들이 교외에 나가 성묘를 하고, 또 불교 사원에서 난로를 설치하는 상황 등이 묘사되어 있다. 2. <입동(立冬)> 조에는 조정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상황과 군인과 백성들에게 설한전(雪寒錢)을 하사하는 상황 등이 묘사되어 있다. 3. <초겨울에 천자는 종묘(宗廟)에서 제사를 지내고, 명당(明堂)에서 대제(大祭)를 지내는 해가 되면 공사(恭謝)의 예식(禮

* 《몽량록(夢梁錄)》 권일(卷一), 권이(卷二), 권삼(卷三) 역주(譯註)는 각각 《중국어문논역총간》 28집, 29집, 30집에, 권사(卷四)는 《중국어문학지》 41집에, 권오(卷五) 상(上)과 하(下)는 각각 《중국학논총》 44집과 46집에 게재되어 있음.

** 한림대학교(翰林大學校) 중국학과(中國學科) 교수(教授).

式)을 행하다> 조에는 맹동례(孟冬禮)를 거행하면서 신료들에게 관직에 따라 꽃을 내려주는 상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더불어 이 상황을 읊은 사(詞)도 몇 수 수록되어 있다. 4. <십일월(十一月) 동지(冬至)> 조에는 항주의 서민들이 동지를 맞아 선물을 보낸다든지 신하들이 조하례(朝賀禮)를 행하는 상황 등이 묘사되어 있다. 5. <십이월(十二月)> 조에는 동지 후 세 번째 술일인 납일(臘日)과 납월(臘月)에 하는 일들이 묘사되어 있고, 12월 24일 “조허모(照虛耗)”를 하는 의식에 대한 설명 및 문신(門神)을 선물하는 풍습에 대한 묘사 등도 있다. 6. <제야(除夜)> 조에는 궁중에서 거행하는 대구나(大驅灘) 의식에 대한 설명과 선물용 야식(夜食) 등에 대한 묘사가 있다.

1. 시월(十月)

시월은 겨울의 첫 달로 바로 소춘(小春)의 시기이다. 날씨가 화창한 관계로 다양한 꽃들 중 한 두 종류가 피기도 하여 초봄(初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소춘(小春)”이라고 한 것이다. 이 달에 내리는 비는 “액우(液雨)”, 즉 “진액(津液)이 담긴 비”라고 불렀는데, 갖가지 곤충들이 이 빗물을 마시고 겨울잠에 들어갔다가, 다음 해 봄 “경칩(驚蟄)”, 즉 “겨울잠 자는 곤충들을 놀래는” 우레 소리를 듣고서야 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10월 초하루에 조정(朝廷)에서는 재상과 집행(執政) 이하에게 비단(錦)을 하사하였는데 이를 일러 “수의(授衣)”, 즉 “옷을 내려주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비단의 색깔은 품계(品階)에 따라 달리 하였다. 백관(百官)들이 입조(入朝)하여 조회에 참가할 때 금오(錦襖)를 삼 일 동안 입었다.

선비들과 서민들은 시월이 되면 교외로 나가 성묘(省墓)를 하고, 조상의 무덤에 제사를 드렸다. 궁중에서는 수레와 말을 내어 종실(宗室)과 남반(南班)을 찬궁(攢宮)으로 파견해 무덤에 가 예를 올리게 하였다. 담당 관리들은 난방용

탄(炭)을 올렸다. 태묘(太廟)에서는 제사용품을 새로 준비해 겨울의 첫 날을 알리는 제사를 올렸다. 이날 여러 대찰(大刹)과 사원(寺院)들에서는 난로를 피웠고, 시주(施主)들에게 땀감 등을 제공하고 재를 올렸다. 그리고 새로 난각(煖閣)을 꾸며 수놓은 발(繡簾)을 드리우고, 노소(老少)가 모여서 술을 조금 따르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난로를 때는 계절이 온 것을 준비하였다.

1. 十月

十月孟冬, 正小春之時, 蓋因天氣融和, 百花間有開一二朶者, 似乎初春之意思, 故曰“小春”. 月中雨, 謂之“液雨”¹⁾, 百蟲飲此水而藏蟄; 至來春驚蟄²⁾, 雷始發聲之時, 百蟲方出蟄. 朔日, 朝廷賜宰執以下錦, 名曰“授衣”. 且賜錦花色, 依品從給賜³⁾. 百官入朝起居, 衣錦襖三日. 士庶以十月節出郊掃松⁴⁾, 祭祀墳塋. 內庭車馬, 差宗室南班往攢宮⁵⁾行朝陵禮. 有司⁶⁾進煖爐炭. 太廟享新, 以告冬朔⁷⁾. 諸大刹寺

-
- 1) 액우(液雨): 옛 풍속에 입동(立冬) 후 임일(壬日)을 ‘입액(入液)’, 즉 ‘액에 들어간다’라 하였고, 소설(小雪)에 이르면 ‘출액(出液)’, 즉 ‘액에서 나온다’라고 하였는데 이 기간에 내리는 비를 ‘액우’라고 하고, ‘약우(藥雨)’라고도 하였다.
 - 2) 경칩(驚蟄):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節氣)로 계칩(啓蟄)이라고도 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345도에 이르는 때로 동지 이후 74일째 되는 날이다. 양력으로는 3월 5일 무렵이 된다. 《한서(漢書)》에는 열 계(啓)자와 겨울잠을 자는 벌레 칩(蟄)자를 써서 계칩(啓蟄)이라고 기록되었는데, 후에 한(漢) 무제(武帝)의 이름인 계(啓)를 피휘(避諱)하여 놀렐 경(驚)자를 써서 경칩(驚蟄)이라 하였다. 옛사람들은 이 무렵에 첫 번째 천둥이 치고, 그 소리를 들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 3) 의품종급사(依品從給賜): 송대의 경우 관리의 품계에 따라 옷을 하사였는데, 공복(公服) 색깔은 삼품 이상은 자색(紫色), 오품 이상은 주색(朱色), 칠품 이상은 녹색(綠色), 구품 이상은 청색(靑色)이었다.(《송사》 권153, <여복지(輿服志)>)
 - 4) 소송(掃松): 조상의 산소를 돌보는 것. 성묘(省墓), 소묘(掃墓)라고도 한다.
 - 5) 찬궁(攢宮): 원래 찬궁이란 황제나 황후를 장사지내기 전에 잠시 안치하던 곳을 의미하였으나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 내려온 후 황제나 황후의 무덤을 모두 “찬궁(攢宮)”이라 하였다. 이는 잃었던 중원 땅을 회복하여 북송 지역으로 이장할 때까지 잠시 사용하는 무덤이라는 의미로 고토(故土)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 6) 유사(有司): 관리(官吏). 고대에는 직분(職分)에 따라 관리를 설치하였고, ‘각각 전문적으로 맡은 분야(各有專司)’가 있었기에 ‘유사’란 표현이 나온 것이다.

院, 設開爐齋⁸⁾供貴家. 新裝煖閣, 低垂繡簾. 老穉團圍, 淺斟低唱, 以應開爐之序.

2. 입동(立冬)

입동에 조정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나라의 토지신(神州地祇)과 천신(天神) 태을(太乙)에 제사지냈다. 15일은 수관(水官)의 액(厄)을 푸는 날로 도교(道敎)의 궁관(宮觀)에서는 선비와 서민들이 제단(祭壇)을 설치하여 망자(亡者)를 위해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액을 풀기도 하며, 어떤 이는 망자를 천도(遷度)하기도 하였다.

입동이 지난 후 계절에 맞게 서설(瑞雪)이 내리면 조정(朝廷)에서는 설한전(雪寒錢)으로 지폐의 일종인 관자(關子)와 회자(會子) 이십만(二十萬)을 군민(軍民)에게 하사하였다. 관(官)에서는 공사(公私)의 임전(賃錢) 50-70을 면제해 주어 두터운 은택(恩澤)을 보여주었다.

2. 立冬

立冬日, 朝廷差官祀神州地祇⁹⁾・天神太乙¹⁰⁾. 十五日, 水官¹¹⁾解厄之日, 宮

7) 동삭(冬朔): 겨울의 첫 날.

8) 노재(爐齋): 《세시잡기(歲時雜記)》 권37에 의하면 10월 초하루에 수도에 있는 사찰에서는 땀감을 준비해 시주들에게 내주었고, 이날 반드시 난로를 피워 당(堂)에 놓고 재회(齋會)를 열었다고 한다.

9) 지지(地祇): 중국의 지신(地神).

10) 태을(太乙): 중국의 천신(天神)으로 태일(太一)이라고도 함. 우메하라 카오루(梅原郁)가 번역한 《몽량록》에 의하면 북교(北郊)의 지단(地壇)에서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의식은 원래 하지(夏至)에 거행하였으나 송대에는 따로 단을 북교에 만들어 맹동(孟冬: 10월)에 중국의 토지신인 신주지지(神州地祇)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송사> 권100,

觀士庶，設齋建醮¹²⁾，或解厄，或薦亡。立冬之後，如遇瑞雪應序，朝廷支給雪寒錢關會¹³⁾二十萬，以賜軍民。官放公私貨錢五七十，以示優恤。

3. 초겨울에 천자는 종묘(宗廟)에서 제사를 지내고, 명당(明堂)에서 대제(大祭)를 지내는 해가 되면 공사(恭謝)의 예식(禮式)을 행하다

매해 초겨울(10월)에는 상순(上旬)에 맹동례(孟冬禮)를 거행하였다. 삼 년에 한 번 명당(明堂)에서 대제(明禋)를 지내는 해가 되면 천자가 직접 공사(恭謝)의 예식(禮式)을 행하였다. 하루 전 천자가 종묘에서 드리는 조향(朝饗)의 제사가 있고, 그 다음 날 공사(恭謝)의 예식을 행하였다. 백관(百官)과 재상(宰相)들은 천자를 알현하였고(起居), 학사원(學士院)에서는 천자가 경령궁(景靈宮)으로 출행하는 것을 시중들었다.

아침을 기다려 행렬을 재촉해 천자의 궁정으로 들어가니,
궁궐 안에는 커다란 초(椽燭)가 허공을 구석구석 밝히고 있네.
위사(衛士)들은 공립(拱立)하여 연(輦)에서 선포하는 말을 듣고,
화려한 햇불과 금련(金蓮)은 천자의 행차를 인도하네.
[待旦催班入帝廷，殿中椽燭徹空明。衛士拱立聽宣輦，華炬金蓮引駕行。]

천자의 수레 앞에서는 교악소(教樂所) 소속 악인(樂人)들이 길을 인도하며 음악을 연주하였고, 소요련(逍遙輦) 뒤에서는 균용직(鈞容直)이 북을 치고 관

<북교(北郊)> 그리고 《정화신의(政和新儀)》에서는 입동(立冬)에 중태일궁(中太一宮)을 제사지낼 때 향주성의 태을오궁(太乙五宮) 중 한 군데에서 제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여기고 있다. 더불어 그는 본문의 천신태을(天神太乙)은 십신태을(十神太乙)의 오류라 여기고 있다.

11) 수관(水官): 도교(道教)에서 받드는 천(天), 지(地), 수(水) 삼신관(三神官) 중의 하나.
12) 건초(建醮): 고대 승려나 도사가 제단을 차려 영혼을 위해 기도하던 행위.
13) 관회(關會): 송대에 처음으로 사용한 관자(關子), 회자(會子) 등의 지폐.

악(管樂)을 울리며 뒤를 따랐다. 경령궁(景靈宮)에 이르러 공사(恭謝)의 예식을 행하고, 그 의식이 끝나면 서쪽의 재전(齋殿)으로 가서 평장(平章)·집정(執政)·친왕(親王)·백관(百官)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잔(盞)의 순서 및 음식의 종류는 조회(朝會)와 성절(聖節) 때와 같았다. 무릇 군신(群臣)들의 음주(飲酒)의 양은 환관이 먼저 상주를 올려 정하고, 술을 따름에 있어 많고 적은 때 잔마다 평척(平尺)을 사용해 양을 재었다. 나눔에 있어 각각 정해진 양이 있어 남겨서는 안 되었다.

전연(前筵)이 끝나면 천자는 연에서 내려와 어병(御屏) 뒤로 돌아갔고, 이때 백관(百官)들은 조금 쉬었다. 천자의 뜻이 전해지면 군신(群臣)들에게 잠화(簪花)가 하사되었고, 천자를 따르는 위사(衛士)·기거관(起居官)·과로군사인(把路軍士人) 등에게도 역시 꽃이 하사되었다. 《송회요(宋會要)》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가정(嘉定) 4년 10월 19일, 천자는 다음과 같이 조유(詔諭)를 내렸다: 대조회(大朝會)와 천자 탄생일(聖節)의 대연회(大宴會) 및 공사(恭謝)와 천자가 회궁(回鑾) 할 때 주상(主上)은 꽃을 꽂지 않는다.

[嘉定四年十月十九日, 降旨: 遇大朝會·聖節大宴, 及恭謝回鑾, 主上不簪花.]

또 다음과 같은 조도 있다.

천자 탄생일과 조회의 연회(宴會) 때에는 군신들에게 통초화(通草花)를 하사하고, 공사(恭謝)와 친향(親饗) 때에는 나백화(羅帛花)를 하사한다.

[具遇聖節·朝會宴, 賜羣臣通草花. 遇恭謝親饗, 賜羅帛花.]

그 신료(臣寮)들의 꽃은 각각 관품(官品)에 따라 하사하였다. 재신(宰臣)과 추밀사(樞密使)에게는 큰 꽃[大花] 18송이와 난지화(欒枝花) 10송이를 하사하고, 추밀부사(樞密副使)와 동첨서추밀원사(同簽書樞密院事)에게는 큰 꽃 14송이와 난지화(欒枝花) 8송이를, 부문각학사(敷文閣學士)에게는 큰 꽃 12송이와 난지화 6송이를, 지합관(知閣官)과 정임(正任) 승선사(承宣使)와 관찰사

(觀察使)에게는 큰 꽃 10송이와 난지화 8송이를, 정임(正任) 방어사(防禦使)에서 자사(刺史)에 이르기까지는 각각 큰 꽃 8송이와 난지화 4송이를, 횡행사(橫行使)와 부사(副使)에게는 큰 꽃 6송이와 난지화 2송이를, 대제관(待制官)에게는 큰 꽃 6송이와 난지화 2송이를, 횡행정사(橫行正使)에게는 큰 꽃 8송이와 난지화 4송이를, 무공대부(武功大夫)에서 무익(武翼)에게는 큰 꽃 6송이를, 정사(正使)에게는 모두 난지화 2송이를, 대요군(帶遙郡)에게는 큰 꽃 8송이와 난지화 2송이를, 함문선찬사인(閤門宣贊舍人)에게는 큰 꽃 6송이를 하사하였다. 부서관(簿書官)에게는 난지화 2송이를 더하였고, 함문지후(閤門祇候)에게는 큰 꽃 6송이와 난지화 2송이를, 추밀원(樞密院)의 제방(諸房), 각방(各房)의 부사(副使)·승지(承旨)에게는 큰 꽃 6송이를, 대사신(大使臣)에게는 큰 꽃 4송이를, 여러 색(色)의 지응인(祇應人) 등에게는 각각 큰 꽃 2송이를 하사하였다. 훈무랑(訓武郎) 이하, 무익랑(武翼郎) 이하 및 대직인(帶職人)들은 관직의 서품(序品)에 따라 꽃을 하사받아 꽃았다. 쾌행관(快行官)의 모자에 꽃는 꽃은 그 모양이 세밀하고 공교로웠으며, 거기에 버들가지를 더하였다. 교악소(教樂所)의 악인(樂人)과 잡극색(雜劇色)은 혼과(渾裹) 위에 꽃의 가치를 높이 세워놓았고, 중간에 백희(百戲)를 달아 놓아 걸으면 움직이며 흔들거렸다. 국간(局幹)·전간(殿幹) 같은 여러 사(司)의 인원(人員) 및 백사(百司) 소속의 친사관(親事官) 등의 관리들은 주취(珠翠)로 만든 화타(花朵)로 화모(花帽)를 장식한 자들이 많았다. 오로지 지존(至尊)만이 꽃을 꽃지 않았고, 다만 평등연(平等輦) 뒤에 황라선(黃羅扇)의 영화(影花)가 있을 뿐이었다. 임안(臨安) 사람들은 천자의 용안(龍顏)을 우러러 보았고, 어가(御街)에는 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이가 비단을 짠 것처럼 촘촘하게 많았다. 예전에 어떤 신하가 이를 28글자로 다음과 같이 읊은 적이 있다.

경령궁(景靈宮)에서 천자의 수레 화녕궁(和寧宮)으로 행차하니,
 머리 위의 궁화(宮花), 채운(綵雲)을 쓴다네.
 돌아가 부모님께 성대한 상황을 과장해 말하고,
 충성을 다하여 우리 임금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맹세하네.

[景靈行駕到和寧，頭上宮花射綵雲，歸向慈嚴誇盛事，誓殫忠力報吾君.]

또 공사(恭謝)를 읊은 한두 수의 사(詞)가 있다. <만정방(滿庭芳)>이란 사(詞)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각(鳳閣)의 상서로운 연기, 용성(龍城)의 아름다운 기운.
 명당(明堂)에서 황제께서 풍년이 왔음을 감사드리는 공사(恭謝)의 예식을 드리네.
 화려한 비단(綺羅)들을 다투어 보고, 휘장은 남풍에 휘말려 올라간다네.
 십리(十里)에 걸쳐 선기(仙氣)를 품은 보장(寶仗), 따뜻한 붉은 비취(紅翠), 영롱한 옥절구(玉碾)가 늘어서 있다네.
 천자가 회궁 함에, 소소(簫韶)는 서서히 연주되고, 그 소리는 오운(五雲)에 퍼지네.
 천관(千官)이 만승(萬乘)을 영접하니, 사륜(絲綸)도 겹겹, 금수(錦繡)도 겹겹이네.
 삼지창(稍)우는 소리를 들으며 연(輦)을 타고 가는 길, 연회는 오궁(龜宮)에서 끝나고,
 용안(龍顏) 우러러 보니 기쁘고,
 임금님의 은혜가 넘치니, 온 세상 온화한 얼굴이 된다네.
 내 평생 커다란 터(洪基) 공고하여 성수(聖壽)가 영원무궁하기만 바랄뿐.
 [鳳閣祥煙，龍城佳氣，明禋恭謝時豐。綺羅爭看，簾幕捲南風。十里仙儀寶仗，暖紅翠，玉碾玲瓏。鑾回也，簫韶緩奏，聲在五雲中。千官迎萬乘，絲綸疊疊，錦繡重重。聽鳴鞘輦路，宴罷龜宮，瞻仰天顏有喜，君恩霈，寶宇雍容。生平願，洪基鞏固，聖壽永無窮。]

<경청조(慶清朝)>란 사(詞)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루(銀漏)에 꽃은 지고, 붉은 것 사라지니 촛불은 눈물만 흘러나니.
 구중(九重)의 어약(魚鑰), 소성(韶聲)은 꿇듯이 연주되고, 천자(萬乘)께서 상희전(祥曦殿) 문 밖에 남시었네.
 대저 성군(聖君)께서는 신령께 공사(恭謝)하니, 삼가 경명(景明)을 방문하여 가례(嘉禮)를 행하시네.
 천의(天意)가 좋구나! 상풍(祥風) 서월(瑞月)에 때는 바야흐로 소춘(小春) 계

절.

천자의 길(禁街) 십리 향기 속에 있고, 천자의 가마(御輦) 수많은 붉은 꽃 그림자 속에 있네.

천관(千官)은 꽃 아래 있어, 수놓은 재갈(繡勒)로 조정하고, 보편(寶鞭)을 휘두르네.

만년동안 영원할 우리 임금님 경축하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또 삼 년을 바라본다네.

[銀漏花殘, 紅消燭淚, 九重魚鑰, 韶聲沸奏, 萬乘祥曦門外, 蓋聖君恭謝靈休, 謹訪景明嘉禮, 天意好, 祥風瑞月, 時正當小春天氣, 禁街十里香中, 御輦萬紅影裏, 千官花底, 控繡勒寶鞭搖曳, 看萬年永慶吾皇, 撚指又瞻三載.]

《어가행(御街行)》이란 사패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평한 삼년.

삼조(三朝)에 천자께서 공사(恭謝)의 예식(禮式)을 올리고,

군신(群臣)과 금위(禁衛)들은 꽃을 꽃고 돌아가네.

거리를 경비하는 자들은 정예군인들.

전포(戰袍)에는 새로운 문양의 독수리 무리 넣었다네.

황실 경비대를 보강하니,

수의(繡衣)와 화모(花帽) 쓴 병사들 겹겹이 서있네.

화려한 의장대(錦仗) 천가(天街) 안에 있으니,

신선의 군대가 옥경(玉京)으로 들어오는 듯,

천상의 음악 귀에 가득하네.

도민(都民)들이 관망(觀望) 할 때,

정말로 재앙은 소멸되고 죄는 사라진다네.

[時康三載昇平世, 恭謝三朝禮, 羣臣禁衛帶花回, 靚巷兒郎精銳, 戰袍新樣團雕擁, 重隘圍子隊, 繡衣花帽挨排砌, 錦仗天街裏, 有如仙隊玉京來, 妙樂鈞天盈耳, 都民觀望時, 果是消災滅罪.]

《서학선(瑞鶴仙)》이란 사패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 동네에 환호성 가득하며 경령(景靈)의 예식이 끝났음을 경축하네.

난여(鑾輿)를 타고 유보(遊步)하니, 서교(西郊)에는 따뜻한 바람 가득하다네.

호수는 깊고, 산은 험준하여도

연기도 아니고 안개도 아닌 자욱한 허공을
아름다운 날개를 저으며
준마는 말갈기 휘날리며 질주하네.
동방(彤芳)을 바라보니,
금란(金鸞)은 은은하고, 곤룡포(袞龍包)의 난(鸞)새는 비상(飛翔)하며 춤추고,
구름을 부려 가까운 천구(天廡)로 돌아오네.
경진(瓊津)에서 연회를 베풀고, 넓은 은혜 고르게 나눠주신다네.
노을 진 하늘 저물면, 취화(翠華)는 흔들린다네.
춤과 음악 시작되면 진홍색 사롱(紗籠)은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별은 청금(淸禁)에서 날고, 은촉(銀燭)은 연로(輦路)에서 그 빛을 발하네.
서광(瑞光) 속에서 만수무강(萬壽無疆)을 태평성주(太平聖主)께 축원 드리네.
[歡聲盈萬戶, 慶景靈禮畢, 鑾輿遊步, 西郊暖風布, 喜湖山深鎖, 非煙非霧, 傳收繡
羽, 驕駟馳驟絳縷, 望彤芳, 穩穩金鸞, 袞鸞翔舞, 雲馭近回天廡, 錫宴瓊津, 洪恩均
顧, 霞天向暮, 翠華動, 舞韶舉, 絳紗籠千點, 星飛淸禁, 銀燭交輝輦路, 瑞光中, 渺視
無疆, 太平聖主.]

천자의 수레는 궁궐로 돌아갔다.

후비(后妃)의 전각(殿閣) 음식을 분배받는 은총을 입고,
병(餅)과 크게 썬 고기 덩어리(胾)는 수백 겹 높이로 쌓아 놓았네.
모두 천자를 수행하는 금위사(禁衛士)에게 주니,
급하게 입에 쑤서 넣으며 모두들 얼굴에는 기쁜 모습 띄네.
[后妃殿閣蒙頒稿, 餅胾高裝數百重, 均給隨鑾禁衛士, 狼餐皆有喜歡容.]

3. 孟冬行朝饗禮遇明禋歲¹⁴⁾行恭謝禮

每歲孟冬, 例於上旬行孟冬禮. 遇明禋, 行恭謝禮¹⁵⁾. 係先一日朝饗¹⁶⁾, 次日

14) 명인세(明禋歲): '명인(明禋)'은 '깨끗하고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 명인세란 명당(明堂)에서 삼년에 한 번 대제(大祭)를 지내는 그 해를 의미한다.

15) 공사례(恭謝禮): 황제가 거행하는 교제(郊祭) 등의 커다란 전례(典禮) 의식.

16) 조향(朝饗): 고대에 천자가 종묘(宗廟)에 제사를 올리는 것. 조향(朝享)이라고도 함.

方行恭謝。百官與宰相起居¹⁷⁾，在學士院伺候駕出景靈宮。“待旦催班入帝廷，殿中椽燭¹⁸⁾徹空明。衛士拱立聽宣輦，華炬金蓮引駕行。”駕前教樂所伶工導行作樂，迨遙輦¹⁹⁾後鈞容直²⁰⁾動鼓吹從後，詣景靈宮行恭謝禮。禮成，就西齋殿賜平章²¹⁾・執政²²⁾・親王²³⁾・百官宴，盞次食品，並如朝會聖節²⁴⁾同。凡羣臣飲量，內侍先奏定，酒斟淺深，每盞用平尺量，分數各有定數，不得留殘。前筵畢，上降輦轉御屏，百官小歇，傳宣賜羣臣以下簪花²⁵⁾，從駕衛士²⁶⁾・起居官・把路軍士人等，並賜花。檢《會要》²⁷⁾：“嘉定四年十月十九日，降旨²⁸⁾：遇大朝會・聖節大宴，及恭謝

17) 거거(起居): 신하들이 황제를 알현하는 것.

18) 연촉(椽燭): 커다란 촛.

19) 소요런(迨遙輦): 천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행차에 사용하던 가마(輦).

20) 균용직(鈞容直): 군악대. 송 태종 태평흥국 3년 군대에서 음악을 잘 하는 자들을 선발해 군악대를 만들었다. 황제가 순행(巡幸)을 할 때마다 황제 앞에서 주악(奏樂)을 올렸기에 인용직(引籠直)이라 불리다 후에 균용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1) 평장(平章): 고대 관직명. 당나라는 상서성(尙書省), 중서성(中書省), 문하성(門下省) 등 삼성(三省)의 장관이 재상이 되었다. 관직이 높고 권력이 강해 항상 설치하지는 않았으며, 기타 관원들에게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라는 이름을 붙였고, 간략하게 동평장사(同平章事)라 부르고 국사에 함께 참여하게 하였다. 당 예종(睿宗) 때 또 평장군국중사(平章軍國重事)라는 명칭이 있었다. 송나라는 당나라 제도를 이어 받아 나이가 많고 명망이 높은 대신이 말도록 하였으며, 그 위계는 재상보다 높았다. 금나라와 원나라에는 평장정사(平章政事)가 있었는데 그 위계는 승상 다음이었다. 원나라의 행중서성(行中書省)에는 평장정사(平章政事)를 설치하였는데 지방의 고급 장관이었고, 간략하게 평장(平章)이라 불렀다. 명나라 초기까지도 이를 따랐으나 오래지 않아 폐지되었다.

22) 집행(執政): 송대 고급 관원의 통칭으로 참지정사(參知政事), 문하시랑(門下侍郎), 중서시랑(中書侍郎), 상서좌우승(尙書左右丞), 추밀사(樞密使), 추밀부사(樞密副使),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 등이 집행에 해당하였다. 송 왕벽지(王辟之)의 《만수연담록(澠水燕談錄)》 <관제(官制)>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지금의 관제(官制)는 옛 제도로 돌아갔는데, 추밀(樞密)의 관직만이 여전히 전하였다. 삼성(三省)의 장관은 통칭하여 집행이라고 하였다[今官制復古，而樞密之職如舊，與三省長官通謂之執政矣].”

23) 친왕(親王): 황제나 국왕의 가까운 친척 중 왕으로 봉해진 자. 친왕이란 명칭은 남조(南朝) 말에 처음 생겼다. 수나라와 당나라는 황제의 형제와 황제의 아들(皇子)을 친왕으로 하였고, 송나라, 명나라도 일반적으로 이를 계승하여 바꾸지 않았다.

24) 성절(聖節): 황제의 탄생일. 당(唐) 개원(開元) 17년(729) 8월 5일 현종(玄宗)의 생일에 좌승상 원건요(源乾曜)와 우승상 장열(張詠) 등이 표를 올려 이 날을 천추절(千秋節)로 정하자고 제안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역대 황제들의 생일은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모두 성절(聖節)이라 하였다.

25) 잠화(簪花): 관(冠)에 꽃을 꽂는 것. 고대 예식의 일종으로 행하였음.

26) 위사(衛士): 경비를 담당하던 병사.

27) 《회요(會要)》: 응당 《송회요(宋會要)》를 의미할 것이나 우메하라 카오루(梅原郁)의 《몽량록》 번역본에 의하면 현존하는 《송회요》에는 바로 뒤에 인용한 두 단락이 없다고

回鑾²⁹⁾, 主上不簪花.” 又條: “具遇聖節·朝會宴, 賜羣臣通草花³⁰⁾. 遇恭謝親饗³¹⁾, 賜羅帛花.” 其臣寮花朵, 各依官序賜之: 宰臣樞密使³²⁾合賜大花十八朵·欒枝花十朵, 樞密使³³⁾·同簽書樞密院事賜大花十四朵·欒枝花八朵, 敷文閣學士賜大花十二朵·欒枝花六朵, 知閣官係正任³⁴⁾承宣³⁵⁾·觀察使³⁶⁾賜大花十朵·欒

한다. 가정(嘉定)은 영종(寧宗)의 연호이고, 가정 4년은 서기 1211년에 해당한다.

- 28) 강지(降旨): 제왕이 내린 조서(詔書).
- 29) 회란(回鑾): 천자의 회궁. ‘난(鑾)’은 원래 천자의 수레에 다는 방울로 뜻이 확대되어 천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 30) 통초화(通草花): 으뜸덩굴의 꽃. 서진(西晉) 혜제(惠帝) 때 정월의 어연(御宴)에서 꽃이 없어 오색(五色)의 통초화를 만들어 하사하였다는 고사에서 기인한 것이다.
- 31) 친향(親饗): 제왕이 조상의 사당에 제사를 올리는 것.
- 32) 추밀사(樞密使): 송대의 최고 군사기구인 추밀원(樞密院)의 장관으로 당(唐) 대종(代宗) 때 처음으로 설치하였고, 환관이 맡았다. 이로 인해 환관이 정치에 간여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황제를 폐위하기까지 하였다. 소종(昭宗) 때에 이르러 사인(士人)이 그 직책을 맡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오대(五代), 후량(後梁) 때는 승정사(崇政使)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후당(後唐) 때 다시 추밀사(樞密使)로 이름이 돌아왔다. 송나라 때에는 추밀원(樞密院)의 장관을 일컬었고, 명 이후에는 군사를 관장하던 대신(大臣)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많이 쓰였다. 《송사(宋史)》 <직관지(職官志)> 2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추밀사는 지원사로 천자를 도와 군사와 정치 일을 집행한다(樞密使, 知院事, 佐天子執兵政.).” 추밀원은 유사(宥司)라고도 불렸으며 국방, 변방 수비, 군사 관리, 기밀 명령의 출납 등의 일을 담당하였고, 중서성(中書省)과 함께 군사와 관련된 권력을 나누어 가졌다. 이에 추밀원과 중서성을 일러 ‘이부二府’라고 불렀다. 추밀원의 장관인 추밀사(樞密使)는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라고도 하였고, 부장관은 부사(副使),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라고 불렀다. 원풍 연간(1078~1085) 제도를 바꾸어 치지원사(置知院事)와 동지원사(同知院事) 2인을 두었다.
- 33) 추밀사(樞密使): 추밀부사(樞密副使)의 오류로 여겨진다. 앞에 나온 추밀사에게 큰 꽃(大花) 18송이를 주었는데, 다음에 또 추밀사에게 14송이를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 34) 정임(正任): 오대(五代) 시기 정임은 실제로 그 직책을 맡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송대 정임은 단지 봉록만을 받을 뿐 실제 그 직위의 역할을 맡지는 않았다. 송대 승선사(承宣使), 관찰사(觀察使), 방어사(防禦使), 단련사(團練使), 자사(刺史) 등은 모두 실제로 그 직책을 맡지 않았고, 다만 무신들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 35) 승선(承宣): 승선사(承宣使). 관직명으로 송초 당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 절도사와 관찰사 자리가 비었을 때 이를 대리하는 유후(留後)라는 직책을 설치하였다. 정해진 인원도 없었고, 직분(職分)도 없었으며, 비록 군명(軍名)이 있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임하지도 않는 무신(武臣)에게 관직을 더해주는 허울뿐인 직책이었다. 송 정화(政和) 7년(1117년)에 이를 승선사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 36) 관찰사(觀察使): 당대 후기 도(道)의 행정장관. 송대에는 당의 직제를 따라 주(州)에 관찰사를 배치하였는데, 실제 맡은 직장(職掌)은 없었고, 정원(定員)도 없었으며, 본주(本州)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정5품에 해당했는데, 승선사(承宣使) 바로 밑의 직위로 방어사(防禦使)보다는 직위가 높았다. 송대 무관 중 관찰사 이상의 직위로는 승선사와 절도사(節度使)밖에 없었던 무관의 최고위직에 해당하였다. 관찰사는 문관으로 치면 시종(侍從)에 상

枝花八朵, 正任防禦使至刺史各賜大花八朵·欒枝花四朵, 橫行³⁷⁾使副賜大花六朵·欒枝花二朵, 待制官³⁸⁾大花六朵·欒枝花二朵, 橫行正使賜大花八朵·欒枝花四朵, 武功大夫³⁹⁾至武翼⁴⁰⁾賜大花六朵, 正使皆欒枝花二朵, 帶遙郡賜大花八朵·欒枝花二朵, 閤門宣贊舍人⁴¹⁾大花六朵, 簿書官加欒枝花二朵, 閤門祇候⁴²⁾大花六朵·欒枝花二朵, 樞密院⁴³⁾諸房逐房副使承旨大花六朵, 大使臣大花四朵, 諸色祇應人等各賜大花二朵, 自訓武郎⁴⁴⁾以下·武翼郎⁴⁵⁾以下, 并帶職人並依官序賜花簪帶.

당하는 최고위직이었다.

- 37) 횡행(橫行): 횡반(橫班)이라고도 한다. 송대 무신(武臣)의 관명으로 조참(朝參)시 옆으로 늘어섰기(橫行)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정사(正使)는 통시대부(通侍大夫)를 포함하여 13 종류가 있었고, 부사(副使)는 정시랑(正侍郎) 등 12 종류가 있었다.
- 38) 대제관(待制官): 관직명으로 당 태종(太宗) 즉위 후 설치하였는데 경관(京官) 중 오품 이상의 관리를 중서성과 문하성에 번갈아 숙직하게 하여 황제가 불시에 찾을 것에 대비하였다. 송은 이 제도를 이어 받아 전(殿)과 각(閣)에 대제관을 설치하였는데, '보화전대제(保和殿待制)', '용도각대제(龍圖閣待制)'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문물을 맡아 관리하였는데 그 위계는 학사(學士) 및 직학사(直學士) 아래였다.
- 39) 무공대부(武功大夫): 송대 실제 직책을 맞지 않는 계관(階官)의 일종. 송 휘종(徽宗) 정화(政和): 1111-1117) 연간에 무신의 계급을 53단계로 정하였는데, 그 중 제 27단계가 무공대부로 이로써 이전의 황성사(皇城使)를 대체하였다.
- 40) 무익(武翼): 무익대부(武翼大夫). 송대 계관의 일종으로 무신 계급 중 제 34단계에 해당되는데 이로써 이전의 공비고사(供備庫使)를 대체하였다.
- 41) 합문선찬사인(閤門宣贊舍人): 송대 관직명으로 처음에는 합문통사사인(閤門通事舍人)이라 부르다 정화(政和) 6년(1116) 합문선찬사인으로 개명하였다. 이들은 합문사(閤門司) 소속으로 천자의 명령을 전달하고 알현하는 일들을 담당하였다. 합문지후 중 문자를 잘 알고, 선양(宣揚)과 도움주기를 잘 하며, 윗사람 모시는 일에 뛰어난 자를 선발해 합문통사사인으로 선발하였고, 모두 합직(閤職)이라 불렀다.
- 42) 합문지후(閤門祇候): 합문(閤門)은 송대 관원의 조회 참석, 연회, 예식 등의 일을 맡았던 기구로 《몽양록(夢梁錄)》 권9 <합직(閤職)> 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합문은 화녕문 밖에 있다. 조회 참석, 조하, 상진, 도반, 상관 등의 의례를 관장하였다. 지합, 부서, 선찬 및 합문지후, 기반 등의 관리가 있었다[閤門, 在和寧門外, 掌朝參, 朝賀, 上殿, 到班, 上官等儀範. 有知閣, 簿書, 宣贊及閤門祇候, 寄班等官]." 어떤 판본에서는 자문(閤門)이라 하기도 한다. 지후(祇候)는 송대 합문사(閤門司)의 장관인 합문사(閤門使)의 속관(屬官)으로 합문사인(閤門舍人)을 도와 조회의 연회, 예절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송사》 <직관지(職官志)> 6에 나와 있다. 합문지후는 궁정(宮廷)의 여러 관서 및 삼반사신(三班使臣)에서 합문지후를 충당하였고, 합직(閤職)이라 칭하였다. 무신 중 청요(淸要)한 자들을 선발하였다.
- 43) 추밀원(樞密院): 당나라 때 처음 설치되었다. 송대 추밀원은 최고 군사기관으로 유사(宥司)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었고, 서부(西府)로도 불리었다. 병권(兵權)을 담당하였으며, 기밀 명령을 수행하며 군사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서성(中書省)과 함께 이부(二府)로 불렸다.
- 44) 훈무랑(訓武郎): 송나라 때 계관(階官) 명칭으로 무신의 53단계 중 43단계에 해당하며,

快行官⁴⁶⁾帽花朵細巧, 並隨柳條. 教樂所伶工·雜劇色, 渾裹⁴⁷⁾上高簇花枝, 中間裝百戲, 行則動轉. 諸司人員如局幹·殿幹及百司下親事等官, 多有珠翠花朵, 裝成花帽者. 惟獨至尊不簪花, 止平等輦後面黃羅扇影花而已. 都人瞻仰天表, 御街遠望如錦. 向有朝臣吟二十八字曰: “景靈行駕到和寧, 頭上宮花射綵雲. 歸向慈嚴⁴⁸⁾誇盛事, 誓殫忠力報吾君.” 又有恭謝一二詞詠之, 名《滿庭芳》: “鳳閣祥煙, 龍城佳氣, 明禋恭謝時豐. 綺羅爭看, 簾幕捲南風. 十里仙儀寶仗, 暖紅翠, 玉碾玲瓏. 鑿回也, 簫韶緩奏, 聲在五雲中. 千官迎萬乘, 絲綸⁴⁹⁾疊疊, 錦繡重重. 聽鳴稍輦路, 宴罷龜宮, 瞻仰天顏有喜, 君恩霈, 寶宇雍容. 生平願, 洪基鞏固, 聖壽永無窮.” 《慶清朝》 “銀漏⁵⁰⁾花殘, 紅消燭淚, 九重魚鑰⁵¹⁾, 韶聲沸奏, 萬乘祥曦⁵²⁾門外. 蓋聖君恭謝靈休, 謹訪景明⁵³⁾嘉禮. 天意好, 祥風瑞月, 時正當小春天氣, 禁街十里香

이전의 관내전승제(官內殿承制)를 대체하였다. 훈무랑은 원래 둔무랑(敦武郎)으로 불리다 송나라 소흥(紹興: 1131-1162) 연간에 훈무랑으로 개명되었다.

- 45) 무익랑(武翼郎): 송나라 때 계관(階官) 명칭으로 무신의 53단계 중 42단계에 해당하며, 이전의 공비고부사(供備庫副使)를 대체하였다.
- 46) 쾌행관(快行官): 어가(御駕)를 수행하며 의복과 그릇 등을 담당하던 직책. 《송사》 권 188 <병지(兵志)> 2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쾌행, 장행은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온 후 설치되었고, 100명이었다[快行, 長行, 中興後置, 一百人].” 그러나 왕명청(王明清)의 《휘주록(揮塵錄)》에는 휘종이 ‘쾌행가’를 보내 소교(小輜)에서 소속당(蘇叔黨)을 불러 입궁하여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북송 때부터 이미 쾌행이란 직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7) 혼과(渾裹): 머리에 쓰는 두건의 한 종류로 원과(諱裹)로도 불린다. 《몽랑록(夢梁錄)》 권20 <기악(伎樂)> 조와 《도성기승(都城紀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잡극부(雜劇部)는 모두 원과를 썼고, 다른 곳에서는 모두 복두(幘頭)와 모자(帽子)를 썼다[雜劇部皆諱裹, 餘皆幘頭帽子].”
- 48) 차엄(慈嚴): 부모님. 자모엄부(慈母嚴父), 즉 자상한 어머니와 엄한 아버지.
- 49) 사륜(絲綸): 가는 실(絲)과 굵은 실(綸). 《예기(禮記)》 <치의(緇衣)>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나온다. “왕의 말은 가는 실과 같지만, 그 말이 나오면 굵은 실처럼 된다[王言如絲, 其出如綸.].”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왕이 처음 말을 하면 가는 실처럼 미세하나, 밖으로 그 말이 나가 행해지면 말이 점점 커져 굵은 실처럼 된다[王言初出, 微細如絲, 及其出行於外, 言更漸大, 如似綸也.].” 후에 이로 인해 제왕의 조서(詔書)를 “사륜(絲綸)”이라고 하였다.
- 50) 은루(銀漏): 미상.
- 51) 어약(魚鑰): 미상.
- 52) 상희(祥曦): 상희전(祥曦殿)을 말하는 것으로 궁성 안에 있으며, 여기서 어연(御宴) 등을 거행하였다.
- 53) 경명(景明): 남악(南嶽) 제후(帝后)의 명칭. 《송사》 <예지(禮志)> 5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태평흥국팔년(太平興國八年)> 또 오악 제후의 호를 지었다. 동악은 숙명(淑明), 남악은 경명(景明), 서악은 숙명(肅明), 북악은 정명(靖明), 중악은 정명

中, 御輦萬紅影裏, 千官花底, 控繡勒寶鞭搖曳, 看萬年永慶吾皇, 撚指⁵⁴)又瞻三載.” 《御街行》: “時康三載昇平世, 恭謝三朝禮. 羣臣禁衛帶花回, 靛巷⁵⁵)兒郎精銳, 戰袍新樣團雕擁, 重隘圍子⁵⁶)隊. 繡衣花帽挨排砌, 錦仗天街裏, 有如仙隊玉京來, 妙樂鈞天盈耳. 都民觀望時, 果是消災滅罪.” 《瑞鶴仙》: “歡聲盈萬戶, 慶景靈禮畢, 鑾輿遊步, 西郊暖風布, 喜湖山深鎖, 非煙非霧, 傳收繡羽, 驂騮⁵⁷)馳驟⁵⁸)狻縷⁵⁹), 望彤芳, 穩穩金鑾, 袞鸞翔舞. 雲馭近回天廡, 錫宴瓊津, 洪恩均顧, 霞天向暮, 翠華⁶⁰)動, ⁶¹)舞韶舉, 絳紗籠千點, 星飛清禁, 銀燭交輝輦路. 瑞光中, 渺視無疆, 太平聖主.” 車駕還內, “后妃殿閣蒙頒犒, 餅齎⁶²)高裝數百重, 均給隨鑾禁衛士, 狼餐⁶³)皆有喜歡容.”

4. 십일월 동지(冬至)

십일월 동지는 소설(小雪)·대설(大雪)에 해당하는 절기이다. 대저 항주(杭

(正明)이라 하였다[<太平興國八年> 又加上五嶽帝后號. 東曰淑明, 南曰景明, 西曰肅明, 北曰精明, 中曰正明。].”

- 54) 연지(撚指): 손가락을 튕기다. 금새, 순식간. 《수호전(水滸傳)》 38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규가 보고는... 먹기만 하였다. 순식간에 이 두 근 반 고기를 다 먹어치웠다[李逵見了……只顧吃, 撚指間把這二斤牛肉都吃了。].”
- 55) 착항(靛巷): 거리 경비. 송 문천상(文天祥)의 《출항난(出巷難)》 시 서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북쪽으로 병사를 파견해 거리 경비를 세워 밤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통금을 하였다[北遣兵靛巷, 禁夜不得往來。].”
- 56) 위자(圍子): 황제의 경호 무사. 천무군(天武軍)이 전적으로 경호 일을 맡았다고 한다.
- 57) 화류(驂騮): 준마(駿馬). 화류(驂騮)라고도 하는데 주목왕(周穆王)의 여덟 준마 중의 하나이다.
- 58) 치취(馳驟): 질주하다. 내달리다.
- 59) 용루(狻縷): 금사후(金絲猴)의 털. 여기서는 준마의 갈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 60) 취화(翠華): 물총새 깃털[翠羽]로 만든 깃발 장식[旗飾]으로 고대 천자가 출행할 때 사용하던 의장의 하나.
- 61) 균천(鈞天): “균천광악(鈞天廣樂)”의 준말로 천상의 음악을 의미한다.
- 62) 자(齎): 크게 썰어 놓은 고기 덩어리.
- 63) 낭찬(狼餐): 이리떼들이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먹기에 이를 비유하여 음식 먹을 때 정신 없이 급하게 먹는 것을 의미.

州)의 풍속과 전례(典禮)를 거행하는 것을 사방(四方)에서 모범으로 삼았다. 특히 동지(冬至)의 세절(歲節)은 사인(士人)과 서민들이 모두 중요시 여겼는데, 선물을 보낸다든지, 잔을 들어 서로 축하를 한다든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것이 보통 때의 절기보다 더 신경을 썼다. 사인과 서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도 중시하였다. 새벽에 닭이 울 때 태사(太史)가 운기(雲氣)를 보고 휴상(休祥)을 점쳤는데 일양(一陽) 후 해그림자(日晷)가 점점 길어져 맹월(孟月)에 비해 선(線) 하나 만큼의 공(功)이 더 늘어났다. 두보(杜甫)가 “해 길어져 선 하나 늘어남에 시름도 따라 느네(愁日愁隨一線長)”라고 시에서 읊은 것이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 날 재신(宰臣) 이하는 조하례(朝賀禮)를 행하였고, 사인과 서민들은 서로 축하를 하였다. 태묘(太廟)에서 천서(薦黍)의 의식을 거행하였고, 조정(朝廷)에서는 재상과 집정(執政)에게 명하여 환구(圓丘)에서 제사를 거행하게 하였다. 관(官)에서는 공사(公私)의 대출금(俸金)을 삼일 동안 면제해 주었다. 천자는 찬궁(攢宮)에 행차해 조향(朝享)을 하였다.

4. 十一月冬至

十一月冬至, 正當小雪·大雪氣候. 大抵杭都風俗, 舉行典禮, 四方則之爲師, 最是冬至歲節, 士庶所重, 如餽送節儀⁶⁴, 及舉杯相慶, 祭享⁶⁵宗禋⁶⁶, 加於常節. 士庶所重, 如晨雞之際, 太史⁶⁷觀雲氣以卜休祥⁶⁸, 一陽⁶⁹後日晷⁷⁰漸長,

64) 절의(節儀): 명절에 보내는 선물.

65) 제향(祭享): 제사용 물품을 늘어놓고 신이나 조상에게 제사지내다.

66) 종인(宗禋):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

67) 태사(太史): 관직명으로 서주(西周), 춘추(春秋) 시대의 태사는 역사 관련 일을 기록하고, 역사서를 편찬하며, 문서의 초안을 잡았고, 더불어 국가의 전적(典籍)과 천문역법(天文曆法)을 관장하였다. 진한(秦漢) 시기에는 태사령(太史令)이라 하였고, 한나라 때는 태상(太常)에 속해 천문, 시간, 별 및 역법을 관장하였다. 위진(魏晉) 이후 역사서 편찬은 저작랑(著作郎)이 담당하였고, 태사는 전문적으로 역법만을 관장하였다. 수나라 때 태사감(太史監)으로, 당나라 때 태사국(太史局)으로 개명하였으며, 송나라 때에는 태사국(太史局),

比孟月則添一線之功⁷¹⁾. 杜甫詩曰：“愁日愁隨一線長”，正謂此也. 此日宰臣以下，行朝賀禮. 士夫庶人，互相爲慶. 太廟行薦黍之典，朝廷命宰執祀於圜丘⁷²⁾. 官放公私僦金⁷³⁾三日. 車駕詣攢宮朝享.

5. 십이월(十二月)

겨울의 마지막 달[季冬]은 소한(小寒)·대한(大寒)의 절기에 해당한다. 만약 이 달에 비나 눈이 추적추적 끊이지 않고 내려 백성들이 살기 힘들면, 조정에서는 지폐의 일종인 관자(關子)와 회자(會子)를 군인과 서민들에게 하사해 주었다. 그리고 공사(公私)의 대출금[貨錢]을 면제하여 징수하지 않았다.

동지(冬至) 후 술일(戌日) 중 세 번째 술일이 바로 납일(臘日)인데 이를 일러 “군왕랍(君王臘)”이라 불렀다. 납월에는 돼지, 양 등의 고기를 소금에 절일 수 있었고, 혹은 말린 돼지 육포[腊豕], 바람에 말린 생선[法魚] 등의 종류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여름이 지나도록 상하지가 않았다. 혜민국(惠民局) 및 사인과 서민들의 집에서는 납약(臘藥)을 조제하였는데 모두 벌레의 해를 입지 않

사천감(司天監), 천문원(天文院) 등의 명칭이 있었다. 원나라 때 태사원(太史院)으로 개명하였으며 명칭(明清) 시기에는 함천감(欽天監)으로 불렸고, 역사서 편찬은 한림원(翰林院)이 담당하였기에 명칭 시기에는 한림을 속칭으로 태사(太史)라고도 불렀다.

68) 휴상(休祥): 상서로움, 복록(福祿).

69) 일양(一陽): 일양(一陽)은 《역경(易經)》 복괘(復卦)와 관계가 있다. 순음(純陰) 10월의 곤괘(坤卦)의 바로 아래가 일양으로 이로부터 복괘로 들어오게 된다. 이에 동지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70) 일구(日晷): 해 그림자.

71) 첨일선지공(添一線之功): 해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형용하는 말. 《세시광기(歲時廣記)》에서 인용한 《세시기(歲時記)》에는 “진위(晉魏) 사이에 궁중에서는 홍선(紅線)으로써 해그림자를 잴다. 동지 후에는 해가 길어져 선 하나가 첨가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72) 집사어환구(執祀於圜丘): 《예기(禮記)》 <월령(月令)>의 호천상제(昊天上帝)를 환구(圜丘)에서 제사지내는 기사(記事)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제방(五帝方)과 일월성신(日月星辰)을 천단(天壇)에서 제사지내는 것이나, 남교(南郊)의 교사(郊祀)와는 다른 것이다.

73) 추금(僦金): 임대료 또는 대출금.

았다. 이 달 8일을 사원(寺院)에서는 “납팔(臘八)”이라 부르는데, 대찰(大刹)에서는 모두 오미죽(五味粥)을 준비해서는 이를 “납팔죽(臘八粥)”이라고 불렀다. 또 붉은 색의 술지게미(紅糲)를 만들어 부유(麩乳)·다양한 과일·죽순·토란 등을 섞어 승려에게 제공하였다. 혹은 시주(施主)나 권문세가에게 음식을 보내기도 하였다.

24일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소식(蔬食)과 당두(餲豆)를 준비해 조왕신(籠王神)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날 시정 및 거리에서는 오색(五色)의 미식(米食)·화과(花果)·교아당(膠牙餳)·기두(箕豆)를 소리쳐 팔았는데, 그 소리가 물이 끓듯 시끌벅적하였다. 그날 밤 집집마다 사람들이 등을 들고 침대 밑을 비추었는데 이를 일러 “조허모(照虛耗)”, 즉 “재앙을 일으키는 악신(惡神)인 허모를 비추다”라고 하였다.

25일 사인과 서민들의 집에서는 팥죽(赤豆粥)을 끓여 식신(食神)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를 일러 “인구죽(人口粥)”이라고 하였다. 고양이나 개가 있는 사람들은 이들에게도 먹였다. 전거(典據)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는 없다.

생각해보건대 이 달은 비록 계절의 행사가 없지만 부귀한 집에서는 하늘에서 서설(瑞雪)이 내리면 연회를 벌여 술을 마신다든지, 눈사자(雪獅)를 만든다든지 하였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술잔을 기울이며 노래를 읊조리거나, 옥과 향을 완상(玩賞)하거나, 혹은 말을 타고 호수가로 나가 호수와 산의 설경을 구경하였는데, 요림요수(瑤林瓊樹), 취봉(翠峯)은 마치 옥으로 깎아 놓은 듯 하여 그림도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시인(詩人)과 재자(才子)들은 이 경치를 보면 납설(臘雪)로 차를 달여 서로 번갈아가며 시를 읊고 노래를 불렀다. 날씨가 맑을 때엔 친구들을 초청해 천가(天街)에서 밤나들이를 하였는데, 무대(舞隊)를 관상(觀賞)하면서 원석(元夕)을 미리 맛보았다.

새해가 가까워지면 거리의 가게들에서는 문신(門神)과 복숭아 부적(桃符), 그리고 봄맞이 패(迎春牌)를 그렸고, 지마포(紙馬鋪)에서는 종구(鍾馗)·재마(財馬)·회두마(廻頭馬) 등을 인쇄해 단골들에게 선물하였다. 그 외에 창출(蒼朮)·소조(小棗)·벽오단(辟瘟丹) 같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도가(道家)

에서는 교년소(交年䟽)·선출탕(仙朮湯) 등을 시주 집에 보냈다. 의사들 역시 도소대(屠蘇袋)를 보냈다. 오색의 실로 네 마리의 금어(金魚)를 동심결(同心結)로 묶어 만사형통 매듭(百事吉結)이라 하기도 하고, 다양한 탕제(湯劑)를 단골집에 보냈다. 이를 받은 집에서는 문액(門額)에 걸어 사악한 기운(邪氣)을 피하려 하였다. 거리에서는 상인들이 관부(官府)에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내고 주석(朱錫)으로 만든 타춘번승(打春幡勝)과 백사길꼭아(百事吉斛兒)를 팔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원단(元旦)에 문에 걸어 두어 새해의 길조(吉兆)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 각 구역마다 창출(蒼朮)과 작은 대추(小棗)를 파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또 폭죽과 성가연화(成架煙火) 종류를 팔기도 하였다.

이 달에 들어서면 거리에는 가난한 자들이 4-5명씩 무리를 이루어 귀신·판관(判官)·종규(鍾馗)·종규의 여동생(小妹) 등의 형상으로 분장해 징과 북을 치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돈을 요구했는데, 이를 민간에서는 “타야호(打夜胡)”, 즉 “밤 귀신을 퇴치하다”라 하였는데, 이 역시 역귀를 쫓아내려는 의미가 있었다.

5. 十二月

季冬之月, 正居小寒·大寒時候, 若此月雨雪連綿, 以細民⁷⁴不易⁷⁵, 朝廷賜關會, 給散軍民. 貨錢公私放免不徵. 自冬至後戌日, 數至第三戌, 便是臘日, 謂之“君王臘”. 臘月內可鹽猪羊等肉, 或作腊貳⁷⁶·法魚⁷⁷之類, 過夏皆無損壞. 惠民局⁷⁸及士庶修製臘藥, 俱無蟲蛀之患. 此月八日, 寺院謂之“臘八”. 大刹等寺, 俱設

74) 세민(細民): 서민. 일반 백성.

75) 부이(不易): 빈궁(貧窮), 가난. 어려움.

76) 석파(腊貳): 말린 돼지 육포.

77) 법어(法魚): 바람에 말린 생선.

78) 혜민국(惠民局): 송나라 때 의료와 약국 기능을 하던 기구. 태부시(太府寺) 소속으로 약을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북송 정화(政和: 1111-1117) 연간 상서성(尙書省)의 제안과 휘종(徽宗)의 동의를 거쳐 원래 있던 ‘매약소(賣藥所)’를 ‘의약혜민국(醫藥惠民局)’으로 개명하였다. 이 시기 혜민국은 유행병 예방용 약을 배포하는 일을 책임지기도 하였다.

五味粥, 名曰“臘八粥”; 亦設紅糟⁷⁹⁾, 以麩乳·諸果·笋·芋爲之, 供僧, 或饋送檀施⁸⁰⁾·貴宅等家. 二十四日, 不以窮富, 皆備蔬食餚豆祀竈. 此日市間及街坊叫賣五色米食·花果·膠牙餚·箕豆. 叫聲鼎沸. 其夜家家以燈照於臥床下, 謂之“照虛耗⁸¹⁾”. 二十五日, 士庶家煮赤豆粥祀食神, 名曰“人口粥”. 有猫狗者, 亦與焉. 不知出於何典. 考之此月雖無節序, 而豪貴之家, 如天降瑞雪, 則開筵飲宴, 塑雪獅, 裝雪山, 以會親朋, 淺斟低唱, 倚玉偎香, 或乘騎出湖邊, 看湖山雪景, 瑤林瓊樹, 翠峯似玉, 畫亦不如. 詩人才子, 遇此景則以臘雪煎茶, 吟詩咏曲, 更唱迭和. 或遇晴明, 則邀朋約友, 夜遊天街, 觀舞隊以預賞元夕. 歲旦在邇, 鋪席百貨, 畫門神桃符⁸²⁾, 迎春牌兒, 紙馬鋪印鍾馗⁸³⁾·財馬·迴頭馬等, 饋與主顧. 更以蒼朮⁸⁴⁾·小棗·辟瘟丹相遺. 如宮觀羽流, 以交年䟽·仙朮湯⁸⁵⁾等送檀施家. 醫士亦餽屠蘇袋, 以五色線結成四金魚同心結子, 或百事吉結子, 並以諸品湯劑, 送與主顧第宅,

79) 홍조(紅糟): 홍조는 홍곡주(紅曲酒)를 만들고 남은 술지게미를 가리킨다. 예로부터 중국의 강남 지역에서는 이 홍조를 이용해 홍조육(紅糟肉)、홍조계(紅糟鷄) 등 식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였다.

80) 단지(檀施): 시주(施主). 승려나 사원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사람.

81) 조허모(照虛耗): <세시잡기(歲時雜記)>에 의하면 송나라 때에는 제야(除夜)에 침대 밑 뿐만 아니라 문아래, 변소 등에도 불을 밝혔다고 한다. <당일사(唐逸史)>에 의하면 ‘허모(虛耗)란 것은 현종(玄宗)의 꿈에 나타났다가 종규(鍾馗)에게 잡혀 먹혔다고 알려진 재앙을 일으키는 악신(惡神)의 이름이다.

82) 도부(桃符): 고대로부터 신차(神茶), 울루(鬱壘) 두 신은 백귀(百鬼)를 잡을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이에 새해가 되면 문 옆에 도목판(桃木板) 두 장을 걸어 놓고 그 위에 두 신의 이름이나 그 그림을 그려 넣어 귀신을 쫓고 사악한 기운을 피하려 하였다.

83) 종규(鍾馗): 전설 중의 인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 당나라 사람 오도자(吳道子)가 그린 종규 그림에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당 현종(玄宗)이 꿈에 크고 작은 귀신 둘을 보았다. 조그만 것이 태진(太眞)의 자색 향낭(香囊)과 당 현종의 옥피리(玉笛)를 훔쳐 궁전을 돌아 도망갔다. 그러자 큰 귀신이 조그만 귀신을 잡아 찢어 먹어버렸다. 현종이 누구냐고 묻자 말하기를 ‘신은 종규라고 하옵는데, 무과 시험에서 떨어진 선비이옵니다. 맹세코 폐하를 위해 천하의 나쁜 귀신들을 없애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후세에 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사용하였다[唐人題吳道子畫鍾馗像. 略云: 明皇夢二鬼, 一大一小. 小者竊太眞紫香囊及明皇玉笛, 繞殿而奔; 大者捉其小者, 擊而啖之. 上問何人, 對曰: “臣鍾馗, 卽武舉不捷之士也. 誓與陛下除天下之妖孽.” 後世圖其形以除邪驅祟.].

84) 창출(蒼朮): 식물의 일종으로 다년생 풀이다. 밑 부분은 목질(木質)이고, 잎은 타원형으로 가을이 되면 하얗거나 담홍색의 꽃이 피며, 뿌리가 아주 크다. 약용으로 쓰이는데 건위(健胃)에 효험이 있고, 선출(先朮)이라고도 한다.

85) 선출탕(仙朮湯): 한약의 이름으로 온갖 사기(邪氣)를 제거하고, 비장(脾臟)과 위(胃)를 따뜻하게 하며, 영문을 막고, 습하고 냉한 기운을 제거한다고 한다.

受之懸於額上, 以辟邪氣. 街市撲買⁸⁶⁾錫打春幡勝⁸⁷⁾・百事吉斛兒, 以備元旦懸於門首, 爲新歲吉兆. 其各坊巷叫賣蒼朮・小棗不絕. 又有市爆杖⁸⁸⁾・成架煙火之類. 自此入月, 街市有貧丐者三五人爲一隊, 裝神鬼・判官・鍾馗・小妹⁸⁹⁾等形, 敲鑼擊鼓, 沿門乞錢, 俗呼爲“打夜胡⁹⁰⁾”, 亦驅儺⁹¹⁾之意也.

6. 제야(除夜)

12월이 다하면 민간에서는 “달이 끝나고 한 해가 다하는 날[月窮歲盡之日]”이라 하였는데, 이를 일러 “제야(除夜)”, 즉 “선달 그믐날 밤”이라고 불렀다. 사인과 서민들의 집에서는 그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문려(門閭)에 물을 뿌려 청소하여 묵은 때를 제거하였다. 마당과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문신(門神)을 바꿔 붙이고, 종규(鍾馗) 그림을 걸고, 도부(桃符)를 못 박아 걸고, 춘패(春

86) 박매(撲買): 송원 시기의 정액제 세금 제도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을 팔 때 관아(官衙)에서 견여가 들어야 할 세금 액수를 정해 상인들에게 도급을 주고, 상인들은 정해진 금액을 세금으로 낸 뒤 초과 이익은 모두 가져가는 제도이다.

87) 타춘번승(打春幡勝): 고대 중국에서는 부현(府縣)의 관리가 입춘 하루 전에 흙으로 만든 춘우(春牛)를 세우고 입춘 날 붉고 푸른 채찍으로 이것을 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한다. 이 의식은 그 해의 작황이 순조롭기를 비는 일이라고도 하고, 추위를 쫓는 일이라고도 하였다. 이에 입춘을 춘우를 때린다는 의미의 타춘(打春)이라고도 한다. 번승은 채승(彩勝), 방승(方勝)이라고도 하는데 금박 또는 은박을 넣은 비단을 접어서 마름모꼴을 만들어 옆으로 거듭 꼬인 머리 장식물의 하나로 봄이 왔음을 축하하기 위해 장식하거나 선물하였다고 한다.

88) 폭장(爆杖): 폭죽.

89) 소매(小妹): 종규(鍾馗)의 여동생으로 오빠와 함께 귀신을 잡았다고 한다. 오빠인 종규와 함께 귀신을 잡는 모습이 《세시잡기(歲時雜記)》 권40에 묘사되어 있다. 오늘날 종규의 그림은 단야절(端午節)에 걸어놓는데, 원대(元代)까지는 제야에 걸어놓았다고 한다.

90) 타야호(打夜胡): 《양공필록(楊公筆錄)》에는 ‘타야호(打夜狐)’로, 《무림구사(武林舊事)》에는 ‘타야가(打野呵)’로, 《촉좌존(燭照存)》에는 ‘타야호(打野狐)’로, 《운록만초(雲麓漫鈔)》에는 ‘타야호(打野胡)’로 되어 있다. 이 말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현대의 ‘타귀(打鬼)’ 즉 귀신을 퇴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91) 구나(驅儺): 중국 고대 세모(歲暮)나 입춘(立春)에 신을 맞아들여 굿을 하면서 영병을 쫓아내던 의식.

牌)를 붙였으며, 조종(祖宗)에게 제사를 지냈다. 밤이 되면 신을 맞이할 향화(香花)와 공물(供物)을 준비해 새해의 안녕을 빌었다.

궁궐에서는 제야(除夜)에 대구나(大驅灘) 의식을 거행하였다. 황성사(皇城司)의 여러 반직(班直)들이 가면을 쓰고, 다양한 모양을 수놓거나 그려 넣은 의복을 입고, 손에는 금창(金戩)·은극(銀戟)·그림을 그려 넣은 목도검(木刀劍)·오색(五色)의 용봉(龍鳳)·오색(五色)의 기치(旗幟)를 잡고 있었다. 교악소(教樂所) 악인(樂人)들은 장군(將軍)·부사(符使)·판관(判官)·종구(鍾虺)·육정(六丁)·육갑(六甲)·신병(神兵)·오방(五方)의 귀사(鬼使)·조군(寵君)·토지(土地)·문호(門戶)·신위(神尉) 등 신으로 분장을 하였다. 궁궐에서 북 치고 관악기(管樂器)를 불며 귀신을 쫓아내며 동화문(東華門) 밖으로 나와 용지만(龍池灣)으로 향했다. 이를 일러 “매수(埋祟)”, 즉 “악신을 묻어버리다”라 하였는데 그리고는 해산하였다.

이 날 궁성 내의 의사국(意思局)에서는 정교한 야식(夜食)용 과자 상자(果子合)를 헌상하였다. 그 상자[合] 안에는 조그만 과자·계절과일(時果)·밀전(蜜煎)·당전(糖煎) 및 시중의 먹을거리들이 다양하게 있었다. 예를 들어 십반당(十般糖)·징사단(澄沙糰)·운과(韻果)·밀강시(蜜薑豉)·조아고(皂兒糕)·밀수(蜜酥)·소포라수(小炮螺酥)·시고(市糕)·오색기두(五色箕豆)·초퇴울(炒槌栗)·은행(銀杏) 등의 먹을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조그맣고 정교한 완구(玩具)인 두아(頭兒)·패아(牌兒)·첩아(貼兒)도 들어 있었다. 작은 주기(酒器) 위에는 꽃혀 있었고[이하 7글자 빠짐], 합(盒) 안에는 대안륜(大安輦)이나 옥로(玉輅)·九[이하 6글자 빠짐] 등의 모형을 만들었다. 이날 밤 궁중에서는 폭죽(爆竹)을 터뜨리며 시끄럽게 놀았는데 이 소리가 거리에서도 들렸다. [6글자 빠짐] 연화병풍(煙火屏風) 같은 여러 종류의 폭죽(爆竹), [及透在 이하 6글자 빠짐] 폭죽 소리가 우레처럼 진동을 하였다. 사인과 서민들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이하 6글자 빠짐] 마치 대낮과 같았다. 난로를 둘러 싸 앉아 술을 권하며 노래를 하고, [鼓 이하 6글자 빠짐] 이를 일러 “수세(守歲)”, 즉 “그해를 지키다”라고 하였다.

6. 除夜

十二月盡，俗云“月窮歲盡之日”，謂之“除夜”。士庶家不論大小家，俱洒掃門閭⁹²⁾，去塵穢，淨庭戶，換門神⁹³⁾，掛鍾馗，釘桃符⁹⁴⁾，貼春牌，祭祀祖宗。遇夜則備迎神香花供物，以祈新歲之安。禁中除夜呈大驅儺⁹⁵⁾儀，並係皇城司⁹⁶⁾諸班直，戴面具，著繡畫雜色衣裝，手執金鉞·銀戟·畫木刀劍·五色龍鳳·五色旗幟，以教樂所伶工裝將軍·符使·判官·鍾馗·六丁⁹⁷⁾·六甲⁹⁸⁾·神兵·五方鬼使·竈君⁹⁹⁾·土地·門戶·神尉等神，自禁中動鼓吹，驅崇出東華門外，轉龍池灣，謂之“埋祟”而散。是日，內司意思局進呈精巧消夜果子合，合內簇諸般細果·時果·蜜煎·糖煎及市食，如十般糖·澄沙糰·韻果·蜜薑豉·皂兒糕·蜜酥·小炮螺酥·市糕·五色莢豆·炒槲栗·銀杏等品，及排小巧玩具頭兒·牌兒·貼兒。小酒器

92) 문려(門閭): 성문(城門)과 마을 어귀에 있는 이문(里門).

93) 문신(門神): 음력 1월 1일에 문에 붙이는 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 나쁜 귀신을 쫓고, 집을 보호하며, 복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신을 붙였다.

94) 도부(桃符): 고대 중국에서 대문 양쪽에 걸어 놓았던 신도(神荼)와 옥루(郁壘) 두 신을 새겨 넣은 복숭아 나무판. 이것으로 사악한 귀신을 누를 수 있다고 여겼다. 오대(五代) 시기에 이르면 복숭아 나무판에 대련(對聯)을 써 놓았는데 후대에 이르면 이를 중이에 썼고, 이것이 바로 춘련(春聯)이 되었다.

95) 대구나(大驅儺): 대나(大儺). 연말에 지내는 액막이 제사로 신을 모셔 악귀를 쫓았다. 나례(儺禮)는 한해에 여러 번 거행하였으나 대나(大儺)는 동지(冬至) 뒤의 세 번째 술일(戌日)인 납일(臘日) 전에 거행하였다.

96) 황성사(皇城司): 황성(皇城), 황사(皇司), 이목지사(耳目之司)라고도 하였다. 궁궐의 문을 시간에 맞춰 여닫고, 매년 금위(禁衛), 전문(殿門), 궁문(宮門), 황성문(皇城門) 등의 암구호를 바꾸는 일 등과 궁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찰하고 비밀리에 첩보원을 운용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97) 육정(六丁): 도교 전설 중의 여섯 정신(丁神)인 정묘(丁卯), 정사(丁巳), 정미(丁未), 정유(丁酉), 정해(丁亥), 정축(丁丑)으로 모두 음신(陰神)이다. 천제(天帝)의 심부름을 하는 신들로 도사들은 부록(符籙)을 사용해 이들을 불러 복을 구하거나 귀신을 쫓아낼 것을 빌었다.

98) 육갑(六甲): 육정(六丁)처럼 천제의 심부름을 하는 신들로 육정과는 달리 양신(陽神)에 해당한다.

99) 조군(竈君): 부엌 신. 중국 풍속에 의하면 부엌 신은 음력 12월 23일에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제석(除夕) 사이에 하늘로 올라가 그 집 사람들의 선악(善惡)을 보고한다고 한다.

上插□□□□□□盒子中做造像生大安輦或玉輅·九□□□□□等. 是夜, 禁中爆竹嵩呼, 聞於街巷. □□□□□煙火屏風諸般事件爆竹, 及送在□□□□□爆竹聲震如雷. 士貪不以貪富家¹⁰⁰□□□□□如同白日. 圍爐團坐, 酌酒唱歌, 鼓□□□□□謂之“守歲”.

< 參考文獻 >

- 孟元老(1956), 《東京夢華錄外四種》, 上海: 上海古典文學出版社.
- 吳自牧 著·梅原郁 譯註(2000), 《夢梁錄 -南宋臨安繁昌記》1-3, 東京: 平凡社.
- 南宋 吳自牧·周密 撰·傅林祥 注(2001), 《夢梁錄·武林舊事》, 濟南: 山東友誼出版社.
- 宋 吳自牧 著·符均·張社國 校註(2004), 《夢梁錄》, 西安: 三秦出版社.
- 劉坤 等 主編(2003), 《夢梁錄外四種》,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 鄧之誠 注(1982), 《東京夢華錄注》, 北京: 中華書局.
- 入矢義高·梅原郁 譯註(1996), 《東京夢華錄 -宋代の都市と生活》, 東京: 平凡社.
- 伊永文 箋注(2006), 《東京夢華錄箋注》, 北京: 中華書局.
- 姜漢椿 譯註(1998), 《東京夢華錄全譯》,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 王明蓀 編撰(1983), 《東京夢華錄》, 台北: 時報出版公司.
- 黃驗 注(2004), 《圖解東京夢華錄》, 台北: 實學社.
- 孟元老 著, 김민호 譯(2010), 《東京夢華錄》, 서울: 소명출판.
- 徐兢 著, 조동원 等譯(2005), 《고려도경》, 서울: 황소자리.
- 沈括 지음, 최병규 譯(2002), 《몽계필담》, 서울: 범우사.
- John W. Chaffee 지음, 양중국 옮김(2001), 《송대 중국인의 과거생활》, 서울: 신서원.
- 자크 제르네, 김영제 옮김(2003), 《전통 중국인의 일상생활》, 서울: 신서원.

100) 사담불이담부가(士貪不以貪富家): 우메하라 카오루[梅原郁]는 그의 《몽량록》 번역에서 이 문장 중 '담(貪)'을 '빈(貧)'의 오류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그의 견해를 따라 해석하였다.

< Abstract >

《夢梁錄》二十卷, 宋吳自牧撰. 自牧錢塘人, 是書全用《東京夢華錄》之體, 以紀南宋郊廟宮殿, 下至百工雜戲之事. 周密《武林舊事》序云: “欲如孟元老夢華而近雅, 固謂夢華錄, 不足於雅馴矣. 而自牧是書之俚俗, 殆有甚於夢華錄者. 然其言得自見聞, 頗為質實, 典章文物於是可徵與武林舊事詳略, 互見實可資, 以稽考故事. 首有自序云: ‘緬懷往事, 殆猶夢也. 故名夢梁錄.’” 末署甲戌歲中秋日書. 考甲戌為宋度宗咸淳十年, 其時宋未亡也. 意甲戌字傳寫舛訛歟. 卷六裏收錄 <十月>, <立冬>, <孟冬行朝饗禮遇明禋歲行恭謝禮>, <十一月冬至>, <十二月>, <除夜>等內容.

關鍵詞: 夢梁錄, 吳自牧, 臨安, 杭州, 南宋.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12. 31.	2015. 1. 19.	2015. 2. 3.	2015. 2. 9.	2015. 2. 28.